

농민의 생계 유지 수단이자 탈레반의 자금원인: 아편 재배는 목인이 옳은가, 타파가 옳은가

이연주 (안양여고)

목차

I. 서론

II.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딜레마-아편 재배 문제

- ① 아편 재배가 생업인 농민
- ② 탈레반의 자금원인 마약
- ③ 목인과 타파(연구질문 해결 부분)
- ④ 지정학은 왜 아프가니스탄 마약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가

III. 결론

I. 서론

-연구배경: 2학기가 되어 수강했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수업 시간 중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수업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국가들, 그리고 그 주변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들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배웠었고, 미군의 철수, 중국의 상황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그룹을 나눠 조사, 발표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듣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배움을 토대로 더 깊게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업에서 조사해보지 못했던(기존 수업에서 중국의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그룹에 속함)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빠지게 된 딜레마와 그로 인해 그들이 택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른 그룹의 발표로 들었던 내용보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지식적인 욕구가 생겼고, 이번 소논문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 8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 미국은 정치, 경제, 치안, 교육 등의 측면에서 아프간의 전후재건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철수했고, 주변국으로 연관되어있는 중국이 미군이 있던 자리를 대신할 것이냐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아프간 지원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을 한 것이었으나, 더 깊은 목적은 중앙아시아에 군사적, 지정학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간은 세계 최대규모의 구리산출지대이자 리튬, 코발트 및 희토류 매장지

대라는 특징을 가졌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닿아있는 해상을 누비기보다는 동투르크스탄 이슬람 운동(ETIM)을 경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장 지역의 독립을 막을 수 있는 데다 대륙을 통해 서쪽으로 뺏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는 아프간이 꽤 매력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원조를 담당하는가, 정국을 안정시킬 것인가, 경제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아프간 시민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의 배경이 지금과 다른, 여성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농민들이 기르는 작물이 양귀비가 아닌 일반작물 또는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작물이었다면 작금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 아프간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던 때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현재와 연결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2009, 2010년 대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II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재배 문제와 관련하여 농민과 탈레반, 마약의 재배, 생산, 유통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마약 문제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룰 것이며, III장에서는 결론과 요약적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II.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딜레마-아편 재배 문제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의 일부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프간은 유럽과 중동으로 통할 수 있는 길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도 신장지역의 독립을 억누르기 위함을 표면적 목적으로 언급하며 아프간을 안으려고 한다는 판단도 존재합니다.¹⁾ 그 외에도 주변국인 바레인에는 미국 해군기지가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독립국가연합(CIS)의 국가와도 국경을 나누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관련된 나라들이 주변에 위치한 상황에서 미국이 받을 뺏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잠재적 기회가 포착되어도 아프간의 내전과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아프간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는 듯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후재건에는 아프간의 특수성에 기인한 네 가지 내생적 영향 요인이 존재합니다. ‘부족주의’와 ‘마약’, ‘군벌’, ‘재건 정부의 취약성’이 그것입니다. 부족주의와 잦은 내전으로 인해 군벌이 형성되고, 농업국가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마약 종류의 식물을 재배하여 탈레반의 자금줄이 되어주는 마약으로 인한 문제들이 재건 정부 출범 당시의 확보되지 않은 정통성 등과 결합하였고 그 상황은 미군이 철수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딜레마]²⁾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후재건을 위한 최적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성균중국연구소. 정세리포트-[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중국]. 2021

2) 이근욱(李根旭).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딜레마." 신아세아 22.1 (2015): 45-67.

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딜레마들을 만들어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아편 재배 문제입니다.

i. 아편 재배가 생업인 농민

아프가니스탄은 농업국가입니다. 아프간 전체 33개 주에서 2006년 28개 주, 2007년 21개 주가 아편을 생산해왔고, 2010년 당시 아프간에서 전세계 아편의 92%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2008-2009년 회계상으로는 마약 생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재건 초기, 정부와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아편 재배를 불법으로 선포하고 농가에 마약 대체 작물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마약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마약 및 경찰 부대도 창설하여 활동했습니다. 2005년 미국은 아프간에서의 '대(對)마약 활동' 5개 목표를 세우고 '생계 대체수단 지원', '아편 생산 근절 및 제거', '마약 유통 제거', '마약법 집행 및 개재', '공공 교육' 등을 실행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2002년부터 영국은 주도적으로 마약 퇴치에 나섰습니다. 2004년부터는 주로 마약 농가의 대체 생계 수단 확보에 초점을 두어 2년간 7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서의 마약 재배는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약 생산과 관련된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³⁾ 그리고 아편 재배 농민들은 2021년인 지금도 과거모습의 현재진행형에 놓여있습니다. 아편 생산의 핵심지역은 탈레반 저항세력의 공격이 가장 거센 지역으로 치안 상태는 매우 위험(Extreme Risk)으로 구분됩니다. (2015년에) 아편 재배 지역의 농민들에게 아편 재배는 당연히 생업이고, 그들은 탈레반- 및 그와 연계된 마약조직에게 대출을 받아 아편을 재배하고 최종적으로 수확된 아편을 마약조직에게 넘기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로 생활합니다. 아편을 대체제 없이 마냥 없애버린다는 조치를 취한다면 농민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대출 상환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크게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⁴⁾

ii. 탈레반의 자금원인 마약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1979년 소련을 돕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들고일어났던 무자헤딘 게릴라 집단은 군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편 재배를 독려하였습니다. 소련의 철군 후에는 아편 재배지역을 둘러싼 내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한 탈레반 정권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탈레반 정권은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그의 핵심에는 마약세력이 자리했습니다. 2001년부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기도 탈레반 주요 지휘관들은 마약 밀매루트를 통해 탈출하여 국경이 맞닿아있는 파키스탄에 잠입해, 은닉해

3) 이종철(Lee Jong-Chel). "전후재건의 내생적(內生的) 영향 요인 고찰." 전략연구 -.50 (2010): 123-160.

4) 이근욱(李根旭).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딜레마." 신아세아 22.1 (2015): 45-67.

두었던 아편재고를 사용해 군사력을 재건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항 세력과 테러리스트, 마약조직과 이를 밀수하는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미군 및 영국군이 마약정제시설을 공격하면서 탈레반 무장세력이 마약시설을 보호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⁵⁾ 이처럼 아편과 탈레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군과 국제연합군, 영국군 등이 아편 재배 대신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샤프란’을 대체작물로 소개하여 지원한다⁶⁾고 한들, 치안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탈레반이 물러가도록 할 수 없기에, 그들이 장악한 지역인 아편재배지역의 농민들이 대체작물을 심는 것조차도 농민들이 되려 곤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iii. 마약에 대한 묵인과 타파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딜레마]에 따르면, 아편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아편을 재배, 수확하여 마약조직에 넘긴다고 한들, 탈레반 및 마약조직은 해당 농가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작물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아프간 경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아편 재배 및 생산을 중단시켰다가는 아프간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할 것입니다. 앞서 ii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들은 탈레반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다른 농산물이 아닌 아편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의 권고로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주민은 위험해지게 되고, 이는 결국 딜레마가 됩니다. 아편재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그것이 생업인 농민들의 반감을 사는데다가, 이들 지역은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으로 무장세력과 연결되므로 재배지를 지키기 위해 도리어 농민들과 탈레반 세력이 더욱 뭉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보다 나은 대체작물을 주선해준다고 한들 그 지역의 탈레반 세력에게 아편재배를 어느정도 강요받는 농민들은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통성 없는 정부의 정책 실행 및 행정 처리 등에서는 부패가 발생했고, 이는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저항세력의 명분을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아편 재배를 묵인하였는데, 이 ‘묵인’ 과정에서조차도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정당성을 더욱 해치기만 했습니다.⁷⁾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탈레반으로 인해 연합군, 미군 등이 치안의 정도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도 없기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묵인을 통한 방치, 방관하는 상태로 이들 지역이 마약 없이 자생해내기를 바랄 것인지, 타파하되 주민들의 생활, 경제적인 면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를 누군가 묻는다면, 대부분이 타파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마약문제를 타파하면서 치안을 확보하고, 인권문제까지 안정시킬 수 있다면 아프간은 꽤나 완벽한 전후재건의 사례

5) 이근욱(李根旭).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딜레마." 신아세아 22.1 (2015): 45-67.

6) 이종철 (Jong Chel Lee). "전후재건 9년, 아프가니스탄의 현황,쟁점,전망 고찰." 大韓政治學會報 18.1 (2011): 199-226.

7) 이근욱(李根旭).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딜레마." 신아세아 22.1 (2015): 45-67.

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재배지 자체를 없애거나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고, 반발과 저항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제외하고, 마약 정제시설의 파괴나 유통책 등을 잡아들이기 위해 파키스탄을 위주로 빠져나가는 탈레반 및 저항세력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파키스탄 등 주변국의 협조로 빠져나가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가는 명분싸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생겨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 탈레반은 공식국가를 선포했고, “샤리아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 머물러야 했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서방 국가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했거나, 탈레반을 비판했던 언론인들은 탈레반의 눈을 피해 숨어다녀야 한다고 합니다.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선량한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 내부에 간섭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외부에서 차단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주변국으로 빠져나가 마약을 판매해 자금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탈레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함이 본 목적인 것을 상기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탈레반과의 싸움과 그 후의 재건이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면 탈레반 세력의 붕괴와 아프간 재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또는 주도적으로 도우려는 국가들이 여럿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v. 지정학은 왜 아프가니스탄 마약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2010년 즈음의 아프가니스탄 모두는 안정적 국가 건설이 요원한 것 같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카르자이 정부가 세워지고 난 후 정권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카불 등의 도시에서가 한계였고, 농촌과 산악 지역의 대부분은 탈레반이 지배하는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아프간 전후재건에 있어서 어려움 중 하나였던 부족주의는 정부가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8세기 중엽 두라니 왕조 때부터 아프간의 국가 건설은 시작되었었는데, 두라니 왕조는 군주제 중심의 비록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르러 많은 영토와 다른 부족들의 지지를 잃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는 결국 아프간에 중앙집권이 되는 국가 대신에 민족국가로의 대체나 흡수로 사실상 부족간 연맹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⁹⁾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망한

8) “걸어서 외교 속으로: 아프가니스탄”, 국민외교아카데미 블로그, 2021년 11월 15일 접속, https://blog.naver.com/knda_academy/222557613868

9) 정태식(Jung Tai-Sik). "아프가니스탄 국가건설의 불안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2 (2010): 35-66.

왕조일지라도 두라니 왕조 또한 강력한 힘이 있었기에 군주제 왕조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망한 이유는 아프간의 지리적 환경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명령이 도달할 수 없는 산악 지대에 자리잡은 종족들의 독립을 중앙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위치하던 도시와 그 외의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오던 산악지대, 농촌 등은 중앙집권적 힘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도록, 지도자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의 종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르자이 재건 정부는 많은 지지를 얻지도 못했고, 아프간 내 종족들의 견제를 받아야 했으며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으로 퍼져 있는 아편 재배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딜레마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간에는 중앙집권에 대한 혐오와 반발이 존재하고, 힘준한 산속에 자리한 종족들을 굴복시킬 수도 없었던 것이 그대로 내려와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된 것입니다.

Ⅲ. 결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치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미군의 완전한 철수 전에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위험지역이니 빠져나오라는 식의 강력한 권고를 했을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샤리아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무장한 탈레반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 외의 보호해줄 타국 군인은 존재하지 않아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후재건 문제 중 하나인 아편 재배 문제는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재배는 줄어들긴커녕 늘어났고, 2021년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편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아편 재배는 생업이기 때문에 작물을 파괴하거나 재배지를 망가뜨리면 주민들의 큰 반감을 사게 됩니다. 탈레반 세력에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의 핵심에는 마약세력이 자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항세력과 테러리스트, 마약조직과 밀수조직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편 재배지역은 탈레반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편과 탈레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지역의 농민들도 계속해서 아편을 재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주변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마약 유통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 종교는 마약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자금원이 잘릴 것입니다.

그동안 실천해왔던 미국 주도의 재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프간의 정치, 경제,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우리나라도 협조하여 중동 지역의 우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이종철(Lee Jong-Chel). "전후재건의 내생적(內生的) 영향 요인 고찰." 전략연구 -.50 (2010): 123-16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62284>

- 이근욱(李根旭).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딜레마." 신아세아 22.1 (2015): 45-67.
- 이종철 (Jong Chel Lee). "전후재건 9년, 아프가니스탄의 현황,쟁점,전망 고찰." 大韓政治學會報 18.1 (2011): 199-226.
- 정태식(Jung Tai-Sik). "아프가니스탄 국가건설의 불안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2 (2010): 35-6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22350>
-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중국” (2021) -정세리포트
- 국민외교아카데미 블로그 “걸어서 외교 속으로: 아프가니스탄” (2021년 11월 15일 접속)
https://blog.naver.com/knda_academy/222557613868